

사회

70억대 '짜퐁' 경유 수백만ℓ 광주·전남 주유소 41곳 유통

광주 13곳 중 1곳 꼴...업주·공급책 등 48명 입건

70억원대의 자동차용 '짜퐁' 경유가 광주·전남지역 주유소 40여곳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년여간 기름값이 '고공행진'했다는 점에서 가짜 경유는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북부경찰청은 22일 값싼 보일러용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 수백만ℓ를 만들어 광주·전남의 주유소에 판매한 이모(40·순천시)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가짜 경유 유통에 가담한 허모(45·순천시)씨 등 공급책 5명과 이를 납품받아 팔아온 주유소 업주 김모(33)씨 등 41명을 같은 혐의

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값싼 보일러용 등유를 산성백토를 이용해 정제한 뒤 경유 50~80%를 섞은 만든 가짜 경유 550만ℓ(70억원 상당)를 광주·전남 주유소 41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광주 내 주유소는 26곳으로, 현재 광주 시내에 326곳의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3곳 중 1곳은 가짜 경유를 판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 소유의 합평군 화교면 죽정리 한 주유소에 10만ℓ 짜리 저장고 6개를 갖춰놓고 가짜 경유를 공급했다. 이씨는 산성백토를 등유에 넣어 혼합하면 경유

와 구별하기 위해 첨가된 붉은색의 식별제가 제거된다는 점을 노려 경유로 둔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 주유소 업주들은 이씨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이를 손님들에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섞은 만든 가짜 경유 550만ℓ(70억원 상당)를 광주·전남 주유소 41곳에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ℓ당 10~20원 가량 이익을 남기고 판매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앞다퉈 가짜 경유를 판 것은 지난 2년간 기름값이 크게 치솟은 데다 2008년부터는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주유소별 기름값이 공개되는 등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공급하다 남은 가짜 경유 6만ℓ를 압수하는 한편 공

급 규모로 미뤄 전북 등 타 지역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날 유사한 수법으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유모(45)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해남군 해남읍 자신의 주유소에서 값싼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10~20% 가량 섞어 판매한 가짜 경유가 수만ℓ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해남 일대 주유소 3곳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선거 사범 24시간 단속한다

광주·전남경찰, 불법행위 46건·60명 적발

광주·전남 경찰이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24시간 단속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광주·전남의 26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관식'을 갖고 6월 14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선거 관련 신고의 접수·처리와 조동조치,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을 하게 된다.

앞서 광주·전남 경찰은 지난 1월 19일부터 선거 전담반을 편성해 22일까지 46건(60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9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모두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9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 1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및 인쇄물배부 7명(35%), 금품제공 2명(10%), 후보비방 1명(5%) 등의 순이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까지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3명(32.5%) ▲허위사실공표 9명(22.5%) ▲사전선거운동 8명(20%) ▲인쇄물배부 5명(12.5%) ▲공무원 선거개입 2명(5%) ▲기타 3명(7.5%)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취 군인 여대생 폭행

광주서부경찰은 22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대생과 술을 마시던 중 자주 들락거리자 주먹을 휘두른 육군 모 부대 소속 A(23) 하사를 폭행 혐의로 검거해 한병대에 인계했다.

A하사는 지난 21일 오전 8시3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대생 B(19)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마장 입구서 여성 폭행·소란

○사소한 시비 끝에 4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2일 "경마장 정보지 판매가 늦다"며 육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최모(44)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 입구에서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던 장모(여·41)씨의 온몸을 때린 데 이어 이를 말리던 김모(여·48)씨의 얼굴도 폭행한 혐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잡힌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경마가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지를 살펴보고 했는데 (장씨가) 자주 꾸물거리는 바람에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속주행 시 자주 멈춰 대형사고 위험

■ 등유 섞인 경유 차에 넣으면?
연비 줄고 엔진 부식에 화재발생도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를 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22일 광주북부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적발한 가짜 경유에는 적게는 20%, 많게는 50%의 등유가 섞여 있었다. 경유 50ℓ에 10ℓ~25ℓ의 등유를 혼합한 것이다.

하지만 등유가 포함된 경유를 주유하면 자동차는 출력이 5% 가량 저하되고 연비는 18% 정도 감소한다. 또 알부미늄으로 된 연료

계통 부품을 부식시키고 엔진수명을 단축시킨다.

가짜 경유는 자동차 부품에 포함된 고무재질을 변형시키고 낮은 인화점으로 인해 장거리 주행 시 화재 위험이 커진다. 고속 주행 시 차가 멈춰서는 경우도 찾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크다.

가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 제조된 기름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나 알데히드 등의 공해물질이 차량을 통해 그대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짜 경유를 주유한 차량은 정비소의 무상 사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불법을 알고 주유한 운전자에게는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승범(왼쪽에서 두 번째)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청사 내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 업주 3명 적발

목포경찰

목포경찰청은 22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모(49)씨와 문모(40)씨 등 2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6)씨

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목포시 용당동 주택가 상가 건물에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29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게임장을 빈 건물로 위장하기 위해 기존 상가 간판을 그대로 내걸고 영업을 하는 한편, 대포폰 등을 이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개월간 목포시 상동 인근 상가 2층에 불법 게임기 53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길태, 검찰서도 "기억 없다" 혐의 부인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검찰조사에서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 검사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납치와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 없다는 진술을 피폭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기억없다"고 말하는 등 경찰 조사와 현장검증 때의 태

도와 변화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의 납치·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이양 시신의 부검결과를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와 국과수 등에 재검정을 의뢰해 시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성일 (Sungil) advertisement with a large lantern illustration and Korean text.